

04.01.2025

안녕하세요

황규인 김성연 스님 사입니다.

“여호와여,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. 여호와여,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.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.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.(하박국 3:2)

늘 기도와 물질로 함께 L 국을 위해 동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. 저희는 3 주전에 L 국에 잘 도착한 후 지금은 L 어를 배우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현지에 계시는 스님들과 현지인들을 일주일에 3 회 임시거처에서 진료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최근 현지의 오른 물가로 인해 저희가 생각했던 예산을 넘어 집과 차를 찾기가 어려웠지만, 어제 정착할 집과 앞으로 사용할 차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준비해주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착할 집이 준비가 되지 않아 4 월 중순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. 현재는 감사하게도 한 달 반 동안 한국에 안식월을 가시게 된 한 스님 가정에서 머물게 되어 임시거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임시거처 사용을 4 월 둘째주까지 한 후 후에는 정착할 집으로 잘 옮길 예정입니다. 3 월 27 일 미얀마에서 큰 지진이 나서 태국과 인근국가에 피해를 주었습니다. 저희가 머물고 있는 L 국은 진동을 느꼈지만 피해는 없습니다.

그제 목을 보냅니다. 함께 그제 주세요

1.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L 국 정착을 잘하고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
2. 4 월에 정착할 집(아파트)에서 잘 적응하고 주변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
3. 평균 40°C 도(약 104°F)가 넘는 L 국 더위가 시작입니다. 더위속에서 지치지 않도록
4. L 국어를 기초부터 잘 배우고 지치지 않으며, 좋은 현지인들을 만나 소통을 시작하면서 언어가 늘 수 있도록 스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
5. 일주일 3 회 스님들 중심으로 현지 형제 자매들 몇 명도 함께 진료와 치료를 하는데, 그래서 저에게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시며, 치료를 통해 아프신 스님이 영육간의 건강을 되찾도록
6. 미국에 머물고 있는 아들들(재훈, 지한)이가 하나님 말씀가운데서 건강히 잘 지내도록
7. 미얀마 지진으로 피해입은 미얀마와 주변국가의 이재민들을 주께서 위로하시며 필요들을 채워 주시도록
8. L 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, 길 잃은 양들이 되돌아 오며,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고 L 국 민족들의 오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부흥이 일어나도록